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11월 1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13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1. 13(수)	담당부서	총괄기획과 자유무역협정이행과
담당과장	정석진 과장(044-203-4120) 안홍상 과장(044-203-5760)	담 당 자	김윤주 사무관(044-203-4123) 원미경 사무관(044-203-5764)

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(FTA)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

- 산업부 「전주기 FTA 플랫폼」 시범사업 개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최근 다수의 자유무역협정(FTA)을 타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이 이미 발효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.

□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,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(회장 김영주)는 11. 13일(수) 공동으로 「전주기 FTA 플랫폼」 시범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.

○ 다양한 채널*에서 모아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애로를 「전주기 FTA 플랫폼」에서 통합 관리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.

* (예시) FTA 강국 코리아(www.fta.go.kr),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(www.knowtbt.kr), FTA 1380(www.fta1380.or.kr), 트레이드내비(www.tradenavi.or.kr) 등

□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연간 3만여 건의 FTA 상담·컨설팅을 제공하고 외국의 시험·인증 취득과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.

○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 업무가 서로 연동되지 않아서 기업들은 불편하고 정부의 지원업무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.

□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, 각 업무시스템의 애로·건의 기능을 하나의 대표 시스템으로 연동시켜 기업의 애로해소와 정책반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「전주기 FTA 플랫폼」을 구축할 예정이다.

□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동 행사에서는 「전주기 FTA 플랫폼」 시범시스템의 기능 시연회와 함께 정부·유관기관 대상 사용자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.

< 전주기 자유무역협정(FTA) 플랫폼 시범사업 구축 완료보고회 >

○ 일시 및 장소 : 2019.11.13.(수) 14:00 - 16:00,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
○ 참석자 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, 지역FTA센터 관세사 등 60여명
○ 주요 내용 : 전주기 FTA 플랫폼 시범시스템 시연회, 정부·기관 사용자 교육 실시

□ 시연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"앞으로는 「FTA 종합지원센터」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입수되는 연간 수만 건의 상담·컨설팅 내용을 통합 데이터베이스(DB)로 일괄·관리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, 제도개선이나 외국과의 이행협상에 적용하겠다."고 밝혔다.

□ 정부는 내년초까지 시범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설계를 수정·보완한 후, 내년 상반기 중 「전주기 FTA 플랫폼」 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.

OPEN

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김윤주 사무관(☎ 044-203-4123) 또는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원미경 사무관(☎ 044-203-57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「全주기 FTA 플랫폼」 개요



□ **주요 기능**

○ 분산된 기업애로 관리망의 데이터를 **통합 플랫폼으로 연계**하여 **기업 애로를 체계적으로 관리**하고, **기업-정부 공동 활용**

○ 기업의 애로제기, 정부의 정보제공(무역장벽 등) 등 일방향 시스템에서, 애로해소 결과 피드백 제공 등 **기업-정부 양방향 시스템으로 개선**

□ **기대 효과**

○ **기업**은 **애로해결의 현황·과정을 추적**(tracking)하고, **수출대상국의 통상환경을 파악**하여, **영업 활동에 활용**

○ **정부**는 **현장애로의 제기부터 해소까지 全과정을** 동 플랫폼에서 파악하고, 축적된 애로정보를 **제도개선 및 이행·개선 협상에 반영**